

야카타마치는 북쪽의 광산과 히메지의 항구를 연결하는 길가에 있는 역참 마을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1876년 이쿠노 광산료 마차길(현재의 '은의 마차길')이 부설되면서 이 마을은 휴식 장소로 번창했습니다. 역사적인 건축물은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, 마을 거리는 일본유산의 구성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